

언론의 자유와 침묵의 목소리: 일본 언론과 NHK 사건*

테사 모리스-스즈키

호주 국립대학교 교수

번역 : 김 규 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조교

‘여성국제전범법정’을 다룬 NHK 다큐멘터리의 정치적 외압을 폭로한 일명 ‘NHK 사건’은 일본 주류언론이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국가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여당의 지나친 정치적 개입이 사건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일본 언론은 이를 폭로한 기자 개인의 신상을 공격하거나 아사히신문과 NHK라는 두 경쟁 언론사 간의 싸움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아베신조로 대표되는 일본 우익 인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파수견’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진보언론에 대한 차별적인 공정성 및 균형성 요구와 지속적인 테러 위협은 일본 언론의 정치 스펙트럼 전반을 보다 보수화시켰고, 주간지 내용을 확대·반복하는 인터넷 대화그룹의 영향력은 자유로운 토론을 더욱 억압하였다. 결국 NHK 사건은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하는 바로 그 개념이 역설적으로 어떻게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묵의 목소리로 이어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진정한 자유 언론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지역언론, 그리고 새로운 온라인 네트워크가 상호 협력하여 오늘날 일본 언론에 팽배해 있는 자기검열과 순응의 분위기에 대항하는 힘을 길러야 할 것이다.

Key Words : NHK, 아사히신문, 여성국제전범법정, 일본 언론, 정치적 압력, 아베 신조

*AsiaRights Issue Four 2005

**역자: qchan@snu.ac.kr

매주 월요일 아침, 일본의 통근열차와 지하철은 화려한 색상의 주간지 최근호 광고전단으로 뒤덮인다. 광고전단들은 그 자체로 예술품이다. 이들 모두는 유사한 포맷을 따르는데, 어떤 경우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잔잔한 글자로 채워져 승객들을 유혹한다. 작은 제목들 가운데 몇몇 단어는 검정색이나 붉은색으로 크게 인쇄되어 금주의 핫이슈임을 나타낸다. 범죄, 사망, 섹스, 스캔들은 이러한 전단지를 채우는 주요 단어들이다. 광고전단에는 글자 뿐 아니라 기사에 실린 인물의 작은 사진들도 함께 게재된다. 금주 영웅들의 화려한 미소나 정치·연예계 죄인들의 무거운 표정 등을 담고 있는 이 사진들은 물론 관련기사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선택된 것들이다.

이 과정은 주요 월간지가 한 달에 한번 가판대에 걸릴 때에도 똑같이 반복된다. 월간지가 좀 더 장기적이고 분석적인 기사를 제공하긴 하지만, 월간지 역시 주간지에서 앞서 다루어진 주제들을 반복적으로 선택한다. 대표적 월간지 분게이슌주(文藝春秋, *Bungei Shunjū*)가 자매 주간지의 이슈를 반복하는 형식이다.

2005년 1월 마지막 주와 2월 첫째 주, ‘거짓말’, ‘마녀사냥’, ‘정치적 압력’이라는 전단지 문구가 지하철 승객의 눈을 사로잡았다. 일본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언론사인 NHK와 아사히신문이 언론 윤리와 자유에 대한 격렬한 논쟁에 휩쓸리게 되자 경쟁자들이 이를 앞 다투어 보도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주간지 헤드라인을 장식하곤 하는 연예계 스캔들과 달리 정치적·사회적으로 깊은 의미를 지닌다. 잡지 광고가 전달하는 활기찬 자유언론의 이미지와 달리, 일본 언론이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자유로운 정치토론의 장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 복잡다단한 질문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¹⁾ NHK 사건은 또한 동아시아의 인근 국가와 관련된 일

1) 공론장으로서 일본 언론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서는 Yoshimi Shunya (2004). *Media Bunka Ron*. Tokyo: Yuhikaku; Yamaguchi Masanori (2004). *Media ga Shimin no Teki ni naru: Sayonara Yomiuri Shimbun*. Tokyo: Gendai Jinbunsha; Asano Ken'ichi and Yamaguchi Masanori (2001). (Eds.), *Musekinin na Masumedia: Kenryoku Kainyu no Kiki to Hodo Higai*. Tokyo: Gendai Jinbunsha; S. J. Pharr and

본의 역사적 책임과 미래에 관한 해묵은 논쟁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1. 언론과 여성국제전범법정

논쟁의 기원은 도쿄에서 ‘여성국제전범법정’(Women’s War Crimes Tribunal)이 열린 2000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과 여타 6개국으로 구성된 NGO 단체가 개최한 이 법정은, 전후 도쿄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전쟁범죄에 대한 각종 증언을 수집하고 공개하여 판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재판의 주제는 전쟁 당시 식민지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일본군의 성적학대를 제도화했던 소위 ‘위안부 제도’에 관한 것이었다. 비록 이번 법정이 제재나 처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재판 참가자와 심판관들은 모두 UN이나 기타 법정에서 수많은 경험을 쌓은 인사들 —전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장을 역임한 가브리엘 맥도널드(Gabrielle Kirk Macdonald) 등— 로 구성되어 있었다. 2000년 법정의 주요 목적은 종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피해 여성들의 증언을 직접 듣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피해 여성들이 하루가 다르게 노쇠해 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동안 정당한 인식이나 법적 보상의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금번 재판은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보다 공식적인 국가적·국제적 판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²⁾

공개적으로 개최된 금번 법정에는 매일 1000명에 가까운 청중들이 몰

E. S. Krauss (1996). (Eds.), *Media and Politics in Japa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Duncan McCargo (2002). *Media and Politics in Pacific Asia*. London: Routledge, chapter 3을 보시오.

2) ‘여성국제전범법정’에 관한 정보는 VAWW-Net 웹사이트를 참조하거나([Online]. Available: <http://www1.jca.apc.org/vaww-net-japan/english/womenstribunal2000/whatstribunal.html>) 혹은 Gavan McCormack (February 2005). How the History Wars in Japan Left a Black Mark on NHK TV (Their BBC). *History News Network*, 7. [Online]. Available: <http://hnn.us/articles/printfriendly/9954.html>를 보시오.

려들었으며, 당시 일본군 2명과 8개 국가에서 온 62명의 중군 위안부 생존자들이 참가하였다.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짜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코리아타임즈(*Korea Times*), 호주방송(*Australia Broadcasting Corporation*) 등 수많은 해외 언론이 이를 보도하였다. 그러나 일본 국내에서는 아사히신문만이 재판의 일부 내용을 다루었을 뿐 텔레비전 가운데 어느 한 채널도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이러한 언론 침묵의 유일한 예외가 있었다. 2001년 1월 30일 NHK 교육채널이 “전시 성폭력을 묻는다”(Questioning Sexual Violence in War)라는 제목의 TV 다큐멘터리를 방송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전쟁 책임문제에 관한 4부작 다큐멘터리의 두 번째 방영분이었다. NHK는 이에 앞서 알제리 독립전쟁과 전 유고슬라비아의 갈등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바 있다. “전시 성폭력을 묻는다”는 2000년 12월 ‘여성전범법정’에 폭넓은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당시 법정 참가자들의 협조로 만들어졌다.

이 프로그램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제의 특성상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최근 우익 논평가들은 전시에 여성학대가 제도화되었던 것에 대한 국가와 군의 책임을 부인해왔다. 많은 수의 여성들, 특히 식민지 출신 여성들이 당시 일본군이 운영하던 ‘위안소’(comfort station)에서 극심한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익 논객들은 이 위안부들이 강제로 끌려갔다는 증언을 축소하거나 위안부의 모집이 군당국이 아닌 지역 브로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³⁾. ‘여성전범법정’에서 다루어진 내용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법정이 히로히토 국왕을 포함한 당시 권력 최상층부에 대한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전범법정’에 참여한 패널들은 위안부 제도는 비인도적인 범죄이며, 히로히토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고, 이는 당시 참가자와 참관인들로부터 뜨거운

3) “중군위안부”(comfort women) 이슈에 관한 아카이브 자료는 Chunghee Sarah Soh, The Comfort Women Project. [Online]. Available: <http://userwww.sfsu.edu/~soh/comfortwomen.html>를 보시오.

박수를 받았다. 국왕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강력히 금기시하는 나라의 주류 언론이 이러한 장면을 방영하지 않은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본 법정에 관한 NHK 다큐멘터리 내용 자체가 아니라, 방송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났던 불미스런 사건이었다. 상반된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의 내용은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어떤 내용들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 바로 전날, 계획된 프로그램의 방영 보류를 주장하는 몇몇 고위 간부들로 인해 NHK 교육팀 내부에는 상당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방송 3일 전인 2001년 1월 27일에는 '대일본애국당'(大日本愛國黨, Great Japan Patriotic Party)과 같은 극우단체에 소속된 30여 명의 우익당원들이 유사 군복을 입고 트럭을 탄 채 NHK를 '방문'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방영취소를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트럭에 화성기를 장착하고 정치적 메시지와 군악을 울리면서 정치관이 '비애국적'인 기관에 기습 방문하곤 한다.

이러한 우익 단체가 비록 소수이고 그들의 출현이 단지 소란을 일으키는 데 그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방문' 행위는 오늘날 일본 정치계 내부에 남아있는 명시적 폭력행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일례로 1987년에는 극우집단 회원 한 명이 아사히신문 오사카 사무실에 들어와 직원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하여 30세 저널리스트 코지리 토미히로가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총잡이는 결국 검거에 실패했다. 1990년에는 당시 나가사키 시장이었던 모토시마 히토시가 히로히토 국왕의 전쟁 책임에 대한 연설을 한 뒤 우익 인사의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 보다 최근인 2003년에는 자신을 '국적정벌대'(國賊征伐隊, Brigade for Conquering North Korea)라 칭하는 집단이 김정일 정권과의 협상에 너무 '소극적'이었던 일본 외무성 핵심간부의 집에 소이탄을 던지기도 했다.⁴⁾ 따라서 유

4) Tessa Morris-Suzuki (24 September 2003). When is a Terrorist not a Terrorist? *Znet Japan*. [On-line]. Available: <http://www.zmag.org/content/showarticle.cfm?SectionID=17&ItemID=4246>를 보시오.

사 제복을 입은 다소 우스꽝스런 특성에도 불구하고 ‘대일본애국당’과 같은 극우 단체의 방문은 보다 심각한 사안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 이틀 후인 1월 29일, 당시 NHK 방송총국장 마쓰오 다케시를 포함한 NHK 고위 간부와 당시 내각 관방 부장관이었던 자민당 정치인 아베 신조와의 만남이었다. 아베는, 당내 정치적 입지가 확고한 인물로서 이는 분명히 언급되어야 할 사항이다. 때와 외교정책가 아베는 키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손자이자 전 자민당 간사장 아베 신타로의 아들로 현 고이즈미 총리의 유력한 후계자로 알려져 있다⁵⁾ (몇몇 보도는 당시 경제산업상이던 나카가와 쇼이치를 2인자로 언급하기도 하지만, 나카가와 자신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아베, 마쓰오와 다른 참석자들은 1월 29일 모임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여성국제전범법정’ 다큐멘터리 내용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과 결과는 현재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다큐멘터리 방송 전 최종단계에서 결정적인 내용 수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성전범법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위안부 제도에 관한 일본 군부의 책임을 부인하는 역사가로 알려진 하타 이쿠히코의 인터뷰가 추가되었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법정 관계자들은 하타와 토론하거나 그의 비판에 답할 어떠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히로히토 국왕을 비난한 모든 내용도 삭제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베와의 만남 직후인 프로그램 방영 24시간 전, 한 NHK 고위간부가 프로그램의 마지막 부분을 편집할 것을 지시했던 것이다. 이로써 다큐멘터리 분량은 최초 44분에서 40분으로 줄어들어, 위안부 제도와 여성 강제 징발에 대한 군부의 책임을 주장한 전 일본군 병사의 증언과 군내 성적학대를 당했던 중국인 희생자의 증언이 삭제되었다. 그 결과 다큐멘터리 최종 방영분에는 ‘여성전범법정’ 변론에 관한 어떠한 장면도 포함되지 않았다. 본 프로그램이 방송된 뒤, ‘여성전범법정’을 주관한 일본 NGO 단체인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일본

5) 아베의 경력은 Profile: Shinzo Abe. [On-line]. Available: http://tokyo.s-abe.or.jp/profile_in_english.html를 보시오.

네트워크'(VAWW-Net Japan, Violence Against Women in War-Network Japan) 회원들은 NHK가 최초 프로그램 제작단계에서 약속한 협조 조항을 위반했다며, NHK 방송사와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한 두 프로덕션 업체에 피해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본 사건은 지금도 계류 중이다.

또한, 마지막 몇 분의 내용 편집에 관한 사실 규명 역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 과정이 방송사의 독자적인 편집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외압에 따른 결과인지가 이슈가 되었던 것이다.

2. 내부고발자의 이야기

지난 4년 동안 NHK 다큐멘터리를 둘러싼 논쟁은 9.11, 이라크 전쟁, 북일관계 위기와 일본평화헌법 개정 움직임 등으로 인해 공중의 관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다. 그러나 2005년 1월 12일, 아사히신문에 두 편의 기사가 게재되면서 이 주제는 다시금 최대의 헤드라인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2001년 1월 프로그램의 수석 프로듀서 나가이 사토루는 — 추후 판명된 내부고발자인 — 당시 프로그램의 마지막 편집상의 변화가 아베 신조 내각 관방 부장관과 나카가와 쇼이치 경제산업상의 압력에 따른 직접적 결과였음을 밝혔다. 이것은 심각한 사건이다. 다른 나라의 공영방송(예를 들어 영국의 BBC나 호주의 ABC)처럼 NHK도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독립하여 운영함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 프로듀서에게 내용수정을 지시한 NHK 고위간부는 NHK 예산이 국회에서 막 논의될 시점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언급했다고 한다. 아베와의 모임에 참석한 또다른 간부가 언급하였다는(방송총국장 마쓰오 다케시로 추후 밝혀짐) 정치인으로부터 “압력을 느꼈다”는 발언은 아사히신문에 직접 인용이 되기도 했다. 이는 프로그램 내용을 바꾸라는 정치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NHK가 예산상의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란 점을 명백히 함축하고 있었다. 아사히신문 기자는 자민당 정치인 아베와 나카가와에게도 이야기를 건넸다. 아베

는 NHK 제작진과의 만남에서 프로그램 내용에 관해 논의했음은 인정하지만, “정치적 압력”을 주었다는 면은 부인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역사교과서 개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인 나카가와가 “나는 단지 무엇이 자연스러운 것인지를 이야기했을 뿐이다. 누군가가 제멋대로 거짓 재판을 하고 있는데, 공영방송이 나서서 이를 보여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한 것을 직접 인용하기도 했다.⁶⁾

여러 가지 배경 요인들은 이 이야기에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첫 번째 요인은 아베 신조의 급속한 정치적 성장이다. 아베는 현재 자민당 간사장 대리라는 핵심 지위에 있으면서 일본 대중과 언론의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북한, 군사력 확장, 평화헌법개정 등의 이슈에 대하여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두 번째 요인은 조직내부의 많은 변화를 예고한 에비사와 카쓰지 NHK 회장에 대한 사퇴압력이었다(이 사건이 발생하자 사내에서 강력한 지위를 유지하던 에비사와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세 번째 요인이자 보다 거시적인 배경은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일본 언론에서 기술적·조직적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의 일환으로 제기된 이슈 가운데 하나가 NHK의 민영화 가능성이다. 이러한 와중에, 신규 미디어 사업가인 호리에 다카후미가 후지TV 채널에 매우 공개적이고 강력한 적대적 인수 입찰을 하게 되자, 미디어 소유권에 대한 위기감은 증가될 수밖에 없었다.

NHK의 반응은 아사히신문 기사가 나간지 3일 후에 에비사와 회장으로 부터 직접 나왔다. 그는 NHK 직원이 정치적 압력을 받았다는 아사히신문 기사를 단호하게 부정했다. 그리고 자민당 정치인 나카가와 역시 이 사건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1월 29일 모임

6) Kanbu, ‘Atsuryoku to Kanjita’: NHK-gawa ni 2 Giin Iken de Bangumi Kaihen (Kaisetsu) (12 January 2005). *Asahi Shimbun*와 Nakagawa Shō, Abe Shi ‘Naiyo Katayori’ Shiteki: NHK ‘Ianfu’ Bangumi Kaihen (12 January 2005). *Asahi Shimbun*; Honda Masakazu and Takada Makoto (12 January 2005). LDP Pressure Led to Cuts to NHK Show. *Asahi Shimbun*. [Online]. Available: <http://www.asahi.com/english/politics/TKY200501120160.html>를 보시오.

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NHK 직원과 대화를 나눈 적은 있지만 그것은 프로그램이 방송된 이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NHK 간부 마쓰오 다케시는 기자회견에서, 아사히신문이 자신의 발언 내용을 완전히 반대로 인용하였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실제 아사히신문 질문에 대하여 그는 정치인에게 “압력을 느끼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⁷⁾

NHK는 1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아사히신문 기사를 교묘하게 부정하였지만, 현 NHK 방송총국장은 한 단계 더 나아간 발언으로 파문을 예고했다. NHK 고위 간부가 프로그램 방송 전에 핵심 정치인에게 향후 일정과 특정 프로그램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관행”(normal practice)이라는 충격적인 정보를 제공했던 것이다.⁸⁾

3. 언론, 독립성 그리고 권력

물론 공영방송의 독립성에 관한 문제는 비단 일본만의 일은 아니다. 현재 도쿄에서 일어나는 논쟁은, 2004년 BBC의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보도가 친정부적이었음을 조사한 허튼위원회(Hutton Inquiry)와 2001년 조나단 시어(Jonathan Shier) 호주방송(ABC) 사장이 친구인 존 하워드(John Howard) 총리의 견해에 부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임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⁹⁾

7) NHK, LDP Lawmakers Deny any ‘Political Pressure’ to Alter Show(15 January 2005). *Asahi Shimbun*. [Online]. Available: <http://www.asahi.com/english/nation/TKY200501150180.html>); Japan: NHK Closes Ranks against Asahi, Whistle-Blower (15 January 2005). *Japan Times*. [Online]. Available: <http://www.asiamedia.ucla.edu/article.asp?parentid=19831>

8) Seijika, Bangumi Naiyo no Jizen Setsumei ‘Tozen’ - NHK Gen-Sokyokucho Ninchiki Shimesu (20 January 2005). *Asahi Shimbun*.

9) 허튼 위원회에 관해서는 위원회 공식 웹사이트(<http://www.the-hutton-inquiry.org.uk>)나 가디언지의 기획보도(<http://www.guardian.co.uk/hutton/0,13822,1021216,00.html>)를 보시오. 시어 사건(Shier Affair)은 Fiona Reynolds (1 Nov 2001). ABC Managing Director Resigns “AM” Program, ABC Radio. [Online]. Available: <http://www.abc.net.au/am/stories/s405594.htm>와 NSW branch of Friends of the ABC

그러나 이번 일본의 사례가 특별히 언론자유에 성격에 대하여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지점은 이번 논란에 대하여 언론과 정치인들이 보여준 반응에 있다. 민주주의에서 언론에 대한 정치적 압력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이는 물론 언론인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넓게 보면 공중의 ‘알 권리’와도 직결된다. 아사히신문이 제기한 문제와 더불어, NHK가 정기적으로 프로그램 방송에 앞서 그 내용을 일부 정치인들과 논의해 왔다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언론윤리뿐만 아니라 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온전한 민주적 시스템에서는 이런 중대 사건이 발생하면 야당과 언론이 활발히 문제제기를 하고, 국회나 사법부와 같은 독립기관이 진상규명에 나서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것은 일본의 현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준다. 자민당은 1990년대의 짧은 공백기를 제외하고는 지난 50년간 계속해서 여당(단독 혹은 연합정권)의 지위를 이어왔다. 한편 작지만 발언력 있던 민사당(전 사회당)의 입지는 지속적으로 줄어든 대신에, 민주당이 일본의 주요 야당으로 성장했다. 민주당은 1990년대에 자민당을 떠난 멤버들로 주요 리더십을 구성하고 있는 혼성 신생 정당이다. 핵심적인 사회, 정치, 외교 이슈로 떠오른 NHK 사건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데, 당 지도자들은 이번 사건에 깊이 관여하여 얻는 정치적 이익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번 사건이 “언론 자유에 대한 중요한 문제”¹⁰⁾라는 입장표명을 하기는 했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는 수준까지 관여하지는 않았다. 여타 대다수의 일본 언론들도 이 사건을 언론독립과 정치적 간섭의 문제로 다루기보다 스포츠 경기 보도처럼 NHK와 아사히신문 두 경쟁언론사 간의 싸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예를 들어 월간

웹사이트에 게재된 Hugh Mackay. Dossier on Jonathan Shier. [Online]. Available: http://www.fabcsw.org.au/periodicals/update_2001/update_2001_04/Update2001-04_6.pdf를 보시오.

10) Yato ‘Kokkai de Tsuikyū’: Akushitsu na Seiji Kainyu to Hihan - NHK Bangumi Kaihen (13 January 2005). *Asahi Shimbun*.

분케이순주는 이 기사의 표제를 “NHK 대 아사히: 언론의 자살”로, 주간 요미우리는 “NHK와 아사히의 비방전: 거짓말은 누가?”로 달았다.

여기서 일본 주류언론의 구조에 대해 잠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일반적으로 ‘진보지’로 간주되는 아사히와 마이니치, 경제신문인 니케이, ‘보수지’ 요미우리과 산케이를 포함하여 5개의 전국 일간지가 있다. 각 신문사가 운영하는 상업 TV 채널은 NHK와 경쟁 관계에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에는 메이저 신문사나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주간지와 월간지가 상당히 많다. 베스트셀러 잡지의 발행부수는 50만 부를 넘어갈 정도이다. 주간지의 피쳐 기사는 일반적으로 무기명으로 작성되는데, 이는 관습적으로 주간지의 경우 정확성의 원칙이 일간지에서 만큼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주간지들은 현재 관심이슈에 대해 때를 지어 사냥하면서, 충격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를 발굴함으로써 경쟁사를 이기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잡지 판매부수의 감소는 이러한 광적인 경쟁을 더욱 격화시켰다. 주간지가 전국발행 일간지가 조심스러워 하는 정치 스캔들을 과감히 파헤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이러한 취재 방식은 루머나 상호비난, 히스테리를 강화시키기도 하며, 재수없게 ‘금주의 인물’로 선정된 특정인의 삶을 망쳐놓을 수도 있다.

사건이 발생했던 그 주, 아사히 소유 주간지는 해당 주제에 관해 침묵하였다(반면 아사히 그룹의 월간지 론자(論座, Ronza)는 아사히신문의 입장을 지지하는 시리즈 분석기사물을 연재했다). 마이니치 주간지는 NHK와 자민당의 관계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는 다른 주류잡지의 아우성에 묻혀버렸는데, 대다수 잡지들은 NHK의 정치적 간섭을 문제 삼기보다 내부고발자의 폭로를 보도한 아사히를 공격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어 인기잡지 슈칸신조(週刊新潮, *Shukan Shincho*)는 “마녀사냥”(아사히가 아베와 나카가와를 비방한 것을 언급하며)과 “언론의 거짓말”(아사히 보도를 언급하며)이란 단어로 이슈보도를 장식했다.¹¹⁾ 그 밖의 잡지들은 약간씩 다른 태도를 보였다. 예를 들어 슈칸분춘(週刊文春,

Shukan Bunshun)은 독자들에게 NHK와 아사히의 “추악한 모습들”을 공개했다. 이러한 기사는 언뜻 본다면 논쟁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으로 보일는지 모른다. 하지만 실제 기사의 핵심주장은 아사히신문이 내부고발자의 폭로를 보도한 것을 격렬히 공격하는 데 있었다. NHK 스태프에 대해서도 많은 언급이 있었지만, 비판의 핵심은 NHK가 ‘여성국제전범법정’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송하면서 무책임하게 행동했다는 것이었다. 분순 기사의 결론에 따르면, 이 모든 사건을 유발한 최초 원인은 바로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유치한 본성”이라는 것이다.¹²⁾

이 이슈에 관한 선정적 잡지 보도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내부고발자의 이야기를 기사화한 아사히신문 기자 혼다 마사카츠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다. 혼다는 아사히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경력기자로서 환경오염, 이라크 전쟁, 동남아 쓰나미와 같은 이슈 탐사보도로 유명하다. 분순은 북한과 혼다의 관계에 대해 연속적으로 문제제기함으로써 그의 신뢰성에 손상을 주고자 하였다. 1970~80년대는 북한요원의 일본시민 납치 사실이 공개되어 북한에 대한 혐오가 널리 퍼져있는 시기였기에, 이러한 비난은 특정한 정치적 공격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여기에 사용된 수사적 장치는 주간지 보도방식의 생생한 사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성국제전범법정’ 국제검사단은 지명한 한국 변호사가 이끄는 12명의 남북한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팀 구성원 가운데 황호남이란 북한 관료가 있었는데, 그는 유창한 일본어 실력을 지닌 일본 전문가로서 일본과 북한 간의 수많은 공식, 비공식 모임에 참여해왔다. 분순은 “일본정부와 연관된” 익명의 인물을 인용하면서, 그를 북한당국의 “넓은 의미에서 정의하면 공작원”(kosakuin)이라고 묘사하였다.¹³⁾ 분순의 정부측 정보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NHK 사건에 관한 아베 신조의 대답에서 이와 동

11) ‘Majogari’ Daikyoho (27 January 2005). *Shukan Shincho*, pp. 32~35.

12) NHK mo Asahi mo Zettai ni Hojinai sorezore no ‘Chibu’ (3 February 2005). *Shukan Bunshun*, pp. 26~30.

13) 위의 책, p. 28.

일한 주장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언급할 가치가 있다.¹⁴⁾

“북한 공작원”이란 용어는 지난 2년간 일본 언론에서 널리 쓰인 것으로, 일반인들에게는 1970~80년대 일본에 잠입해 시민들을 납치해간 비밀 기관을 연상시키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정의하면 북한 공작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누구나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분순 기사(그리고 아베)는 황호남이 북한의 행정관료라는 사실 이외에 어떠한 유죄의 증거도 밝혀내지 못하였고, 따라서 정치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이 문구는 불길한 세력이 작동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일으키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분명 성공하였다.

다음 단계는 이 불안한 기운과 아사히신문의 혼다 기사를 연결시키는 것이었다. 분순은 여기서 조그마한 꼬투리를 잡아 크게 과장해야만 했다. ‘여성국제전범법정’이 개최되기 얼마 전, 혼다 기사는 일본의 유명한 NGO 단체가 주관한 ‘평화의 배’(Peace Boat) 행사에 참여했었는데, 여기에는 북한에 잠시 정박하는 일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항해 중에 혼다 기사는 북한 참가자들이 ‘여성전범법정’ 참여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그 내용을 기사화하였는데, 분순의 한 익명 기사는 “그 결과 일본에 온 인물이 바로 황호남”이라고 결론지었다.

물론 혼다 기사가 북한을 방문했다는 사실과 ‘여성국제전범법정’에 북한인이 참가할 것이란 보도는 정치적으로도 저널리즘적으로도 비난할만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정보는 NHK 편집권에 대한 정치적 간섭에 의혹을 제기한 당초 분순 기사 주제와도 맞지 않다. 그러나 교묘한 어휘 선택으로, 이 기사는 혼다 기사의 취재가 어떤 식으로든 “넓은 의미에서 정의하면 북한 공작원”인 인물을 일본으로 데리고 오는데 기여했다는 의미를 전달하는데 성공했다. 이 기사는 당시 일본의 여론환경을 이용해서 혼다와 그의 기사는 기껏해야 미심쩍거나 거짓이고, 최악의 경우 반역과 범죄라는 일차적 인식을 독자들에게 심어주었다. 이와 유사한 인신

14) 예를 들어, Abe Shinzo and Nakanishi Terumasa (March 2005). Ianfu mo Yasukuni mo ‘Asahi Mondai’ da. *Shokun!*, pp. 22~33. 그 중 특히 p. 29를 볼 것.

공격이 다른 여러 잡지에서도 반복되었는데, 이 가운데 우익 월간지 쇼군(諸君, *Shokun*)은 Honda 기자의 경력과 개인적 신념에 대한 적대적이고 자세한 분석기사로 지면을 가득 채웠다.¹⁵⁾

분순과 다른 잡지들이 아사히 저널리즘의 기준을 비난하면서 기자 개인에 대한 야비한 공격을 일삼는 것은 언뜻 보았을 때는 상당히 흥미로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사의 반복보도는 다음과 같은 심각하고 유쾌하지 않은 메시지를 수반한다. 즉 현존 정치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기사를 쓰는 저널리스트는 다름 아닌 그들의 동료로부터 응징당하게 되며,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매장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NHK 사건에 대한 이러한 반응은 언론과 민주주의에 관한 핵심문제로 이어진다. 전통적 미디어 이론에 따르면, 자유 언론은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정치인의 월권행위를 경고하는 일종의 ‘감시견’(watch dog) 역할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오늘날 언론 비평가들은 기업화된 이 시대의 언론이 이러한 ‘감시견’ 역할을 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예를 들어 2004년 미국 다큐멘터리 <아웃폭스트>(Outfoxed)는 미디어 황제 머독과 조지 부시 행정부 간의 긴밀한 관계에 주목한 바 있다.

일본 언론에 대해서도 ‘감시견’이 아닌 정치 엘리트의 이익을 보호하는 ‘보호견’(guard dog)으로 기능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¹⁶⁾ NHK 사건은 언론과 정치권력 간에 구조적 결탁이 이루어지는 여러 양상을 보여준다. 논란이 예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 전 일부 정치인과 내용 논의를 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NHK 간부의 공공연한 발언은 방송 독립성

15) Nishimura Yukihiko (March 2005). Tenka no Asahi ni ‘Honda Masakazu’ Kisha Ari. *Shokun!*, pp. 48-55.

16) 예를 들어, Maggie Farley (1996). Japan’s Press and the Politics of Scandal, in S. J. Pharr and E. S. Krauss (eds.). *Media and Politics in Japa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pp. 19-43; “보호견” 이론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Chalinee Hirano (2001). *Political Information Contests and the Media’s Role in Politic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hai and Japanese Media*. unpublished Ph. D. thesi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를 보시오.

에 관한 NHK 조직의 관념 자체를 의심케 한다.

한편 주간 분순 기사의 사례에서 보듯이, 특종을 향한 상업 잡지의 끊임없는 탐색은 고위 관료나 정치인과 같은 ‘정부 관련인사’의 사사로운 비공식 발언에 크게 의존한다. 실제로 NHK 사건의 핵심 문제는 기자 개인(신문, 방송, 주간지 기자)과 유망 정치인 사이에 형성된 매우 친밀한 개인적 친분관계에 대한 것이다. 일본 언론인은 공식, 비공식 자리에 항상 따라다녀야 할 특정 정치인을 정기적으로 할당받는데,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가까운 개인적 관계로 발전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자는 해당 정치인이 알리고 싶은 정보를 퍼뜨리는 채널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그에 대한 보상은 때때로 ‘특종’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원과의 관계 유지는 신문과 잡지의 상업적 성공을 위한 필수요소로 인식된다.

주류 잡지는 기성 권력층 내에서 반목과 질투의 대상이 되는 정치인 개인에 대한 폭로성 기사를 언제든지 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서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문제에 관여하기는 꺼려한다. NHK 사건의 경우, 많은 주간지들이 정부와 NHK 간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조사하기보다는 아사히신문을 공격하여 판매량을 늘리는, 정치적으로 유리한 선택을 했고, 동시에 정치인과 지도급 관료들 내부의 믿을만한 비밀 정보원을 계속 보유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언론은 굶주린 로트와일러(Rottweiler)와 같이 매우 충실한 “보호견”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4. ‘공정하고 균형잡힌 저널리즘’

일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일본은 언론의 자유가 헌법과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 공식적인 정부 검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NHK 사건은 이러한 언론 자유가 여러 가지 힘에 의해 얼마나 침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힘에는 첫째, 활발한 정치 비판의 부재; 둘째, 언론사와 여당 정치인 간의 보이지 않는 고리; 셋

째, 극우파의 테러와 이를 막아낼 능력과 의지가 부족한 일본 경찰; 넷째, 기성 정치권력에 적대적인 개인이나 조직을 비난함으로써 상호 경쟁하는 주류 상업 언론 등이 있다. 이들 네 가지 힘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심각히 위협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이들이 결합하면 왕실 체제(가장 오래된 금기)에서부터 난징 대학살, 위안부 제도와 같은 전쟁 범죄, 북일 관계에 이르는 중요 이슈들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를 저해하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금기들은 역사적 기억과 책임문제에 관하여 일본과 아시아 내 인근 국가 간에 갈등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점점 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이슈들이다.

대다수 일본인들은 일본군이 이라크 주둔군으로 참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에 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는 어렵다. 이는 2004년 일본인 세 명이 이라크 반란군에게 납치된 후 일본 언론의 격렬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들은 그들이 석방되어 일본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미국의 이라크 정책에 일본 정부가 협조하는 것에 대하여 감히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을 들어 그들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제5의 권력으로 등장한 인터넷 대화그룹의 영향력에도 주목하게 되었는데, 인터넷 대화그룹은 (다소 역설적이지만) 현재 일본 언론의 자유로운 토론을 더욱 억압하고 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대안 공론장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대화 그룹이라 불리는) “채널 2”와 같은 대화그룹은 지금까지 오히려 주간잡지의 내용을 반복·확대시키는 장으로 기능해왔고, (이라크 납치사건에 보듯이) 주류 언론의 불안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이들에게 엄청난 양의 익명 항의메일을 보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NHK 사건은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고안된 개념이 오히려 자유로운 공개 토론을 막게되는 역설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본 사건에 대한 집권여당 — 대부분 자민당 간사장 대리 아베신조에 의해 좌우되는 — 의 주된 대응은 토론의 핵심을 NHK에 대한 정치적 간섭 문제에서 다큐멘터리 <전시 성폭력을 묻는다>의 ‘공정성과 균형성’ 문제로 옮기는

것이였다.

(대다수 일본 주류언론에 의해 충실히 반복된) 그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여성국제전범법정’은 특정한 정치 아젠다를 지닌 NGO 단체가 조직한 이벤트였다. NHK가 이 법정을 다룬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가 공영방송이 특정 NGO 단체의 관점을 그대로 따르고 공중에게 이를 대변해주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 공정성과 균형성의 근본 원칙에 따르면, NHK는 NGO의 의견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다큐멘터리 내에 삽입해야 했다. 본 다큐멘터리의 방송 전달, 아베가 NHK 간부를 만난 것은 방송이 이러한 ‘공정성과 균형성’의 원칙을 지켜야 함을 상기시킨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얼핏 보아 합리적으로 비치는 ‘공정하고 균형잡힌 저널리즘’의 요구는 프로그램 전체나 언론사 전체 편성이 아닌 정치적으로 비판적인 일부 프로그램에만 적용될 경우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 위해 NHK와 NGO 단체들 사이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많은 잡지들이 아베의 ‘공정하고 균형잡힌 저널리즘’ 논리에 맞장구치고 있던 바로 그 주에, NHK 메인 뉴스는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낸 ‘남북희생자가족협의회’(AFVKN,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는 ‘카조쿠카이’로 알려짐)의 활동을 헤드라인 뉴스로 방송했다. ‘남북희생자가족협의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성원서에 동의서명을 받는 활동을 벌이던 단체였고 이들의 활동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사건이였다. 2002년 이래 ‘남북희생자가족협의회’와 그 자매단체인 ‘남북자구출전국협의회’(NARKN, ‘스쿠우카이’로 알려짐)의 시위나 공개모임, 기자회견 등도 자주 그리고 차세하게 뉴스로 보도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들 두 NGO 단체는 상당수의 남북 일본인이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으며, 그들의 송환을 촉구하기 위해 김정일 정권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요구하고 있다.¹⁷⁾ ‘남북희생자가족협의회’와 ‘남북자구출전국협의회’는 자민당 간사장 대리 아베 신조를 포함한 주력 정치인들과의

강한 연계를 맺는데도 성공했다. NHK가 이 두 단체의 활동에 대해 자주 보도하고 있지만, 이 보도들은 반대 입장에 선 사람들의 의견을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균형 잡힌 뉴스가 아니다. 또한 이들 NGO 단체의 활동과 성명에 대한 국가 공영 방송사의 무비판적 보도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치 지도자나 주류 언론 누구도 부정적 논평을 하지 않았다. ‘납북희생자가족협의회’와 ‘납북자구출전국협의회’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점차 일본 언론의 금기가 되어가고 있었고, 반면 ‘전쟁과 여성에의 폭력-일본 네트워크(VAWW-NET)’의 지지자들은 격렬한 언론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다.

아사히신문과 혼다 기자에 대한 언론의 반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아사히신문에 대한 비판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는 것의 최근 추세일 뿐이다. 언론 공격의 주요 목표는 아사히신문의 일본 정부에 대한 ‘균형잡히지 않은’ 비판이다. 아사히신문 기자들이(혼다를 포함해) 반정부 사회활동을 하는 NGO 단체와 친밀한 관계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1987년 코지리 기자 암살 직후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비판 캠페인은 아사히신문의 편집방침에 어떠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사히신문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인사의 논평을 비판적인 정치 기사에 함께 게재함으로써 ‘균형’을 맞춰 나가고 있다. 보수지인 산케이나 요미우리의 기사에서도 좌파적인 논평에 기회를 주는 유사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면 아사히의 이러한 변화가 바람직할 수 있다. 하지만 당연히 보수지 내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공정성과 균형성’에 대한 일방적이고 선별적인 요구들이 가능하게 되면서 일본 언론의 전반적인 정치 스펙트럼은 보다 우향화하게 되었다. 논쟁적 이슈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을 위협에 빠뜨리고 싶지 않은 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기보다 침묵을 택했기 때문이다.

17) NGO 단체 연합 웹사이트(<http://sukuukai.jp/narkn>)를 보시오.

5. 자유 토론의 회복

“하지만 위협을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당신(혹은 당신 가족)의 안전이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나 현 일본 사회의 트렌드를 비판하는 언론 논평을 쓰는 동료들이 이러한 질문에 직면하는 것을 수도 없이 들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들이 일본 학자와 저널리스트, 그리고 그 외 일반 사람들의 일상적인 저녁 대화소재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위협은 형태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재하는 속성을 지닌다. 일본 내부의 몇몇 인사들은 이러한 위협을 무시하고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대다수의 학자들과 여타 인사들은 무언의 두려움으로 인해 언론을 통해 더이상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는다. 항의메일이나 살해협박, 주간지에서 개인적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 언론에서 ‘극단적’이거나 ‘비애국적’ 인사로 분류되는 것, 금기시되는 주제에 손댔다가 자신의 경력에 손상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이 이러한 무언의 두려움에 해당될 것이다.

NHK 사건은 물론 혼란을 야기하기는 하겠지만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NHK에 대한 정치적 간섭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독립위원회가 설립될 것인가?(NHK 간부들과 기타 인물들이 아사히신문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언급한 바 있다는 점에서) 사건에 관한 진실이 법정에서 밝혀질 수 있을 것인가? NHK 간부들과 정치인들은 이 사건에 대한 여타 기관의 정밀조사를 피하는 데 성공하고, 이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미해결된 미스테리적 사건’으로 잊혀지게 될 것인가? 아사히신문과 그 기자들을 향한 경쟁 언론사의 공격은 해당 신문사의 논조 변화를 자극할 것인가? 향후 이와 같은 논쟁적 이슈가 등장했을 때 기자들이 보도를 하고자 할 것인가? 이 사건으로 인해 누구의 경력이 강화되고 누구의 경력이 훼손될 것인가?

본 사건은 일본 주류언론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현존

정치 및 언론 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강한 저항을 받는다는 일본 사회의 특성도 동시에 보여주었다. 정부와 NHK 간의 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민주당과 주류언론의 강력한 요구 없이 일본사회에서 본 이슈가 제대로 제기될 수는 없었다. 사건 발생 몇 주 후, 다수의 시민사회 네트워크(종종 그들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함)들은 언론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¹⁸⁾ 방송될 프로그램 내용을 정치인과 공유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였던 NHK 간부의 발언은 ‘NHK 시청자 파업’을 촉발시켰고, 이들은 NHK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독립성을 회복할 때까지는 수신료 납부(공영방송 제원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하였다.¹⁹⁾

이러한 캠페인이 일본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아사히와 마이니치, 그리고 산케이는 캠페인에 대하여 단신 기사를 실었지만, 예상대로 다른 대부분의 전국 언론은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홋카이도 신문’이나 ‘코치 신문’과 같은 일본의 여러 지역신문들은 NHK의 정치적 독립을 요구하는 시민 활동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를 보도하였다.²⁰⁾ 지역 언론사 역시 해당 지역 유지와 재정적,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지역 이슈보도에서는 종종 그들의 영향을 불가피하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역 언론사는(대부분 도쿄에 위치한) 전국 언론사에 비해 중앙정부와 많이 떨어져 있고, 정치인이나 정부 관료와의 개인적 고리에 훨씬 덜 의존적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 언론들은 전국 뉴스를 보다 비판적이고 독립적으로 보도하거나, 주류 전국 언론이 침묵하는 사회적 이슈를 과감히 다루기도 한다.

18) 이와 관련된 예는 Mekiki-Net(<http://www.jca.apc.org/mekiki/nhk/index.html>)을 보시오.

19) NHK Bangumi Modai: Jizen Setsumei no Kinshi o Moshire: ‘Jushinryo Shiharai Teishi no Kai’ Hassoku (9 Feb 2005). *Mainichi Shimbun*와 Jushinryo Harai Toketsu Undo: NHK Mondai de Todai Kyojura ‘Jizen Setsumei’ Kinshi Motome (6 Feb 2005). *Asahi Shimbun*을 보시오.

20) (Shasetsu) NHK Mondai: ‘Jinshin Ishhin’ de Katazuku ka (26 Jan 2005). *Hokkaido Shimbun*; (Shasetsu) NHK Kaikaiku: Hyoka wa Shichosha ga aru (9 Feb 2005). *Kochi Shimbun*.

인터넷 대화그룹이 약자를 괴롭히는 전국적 캠페인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최근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 보다 자유로운 공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모든 NGO 단체들이 주류 언론에 동등한 접근성을 누리지는 못한다. 하지만 인터넷은 자신의 주장을 공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번성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이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뿌리내리고 있기는 하지만, 온라인 저널리즘의 실험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인터넷 TV 서비스를 제공하는 'Videonews.com'과 같은 사이트를 포함하는데, 이 사이트는 (내부고발자 나가이의 기자회견의 미삭제분, 일본 저널리스트와 언론 전문가 집단이 사건 조사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NHK 사건에 대한 중요 콘텐츠를 방송하고 있다.²¹⁾ 인터넷 언론은 주류 언론을 통해 말해지지 않는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었고, 동시에 일본 언론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비슷한 문제에 대한 다른 국가의 경험을 듣는 '국경을 넘어선 연계의 가능성'을 창조하였다.

시민 사회, 지역 언론, 그리고 새로운 온라인 네트워크가 상호 협력한다면, 일본 주류언론을 감싸고 있는 자기검열과 순응의 분위기에 대항하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21) NHK o Naibu Kokuhatsu shita Nagai Satoru Chifu Prodyusa Kisha Kaiken (13 Jan 2005). *Videonews.com*; Janarisuto to Media Kankeisha ni yoru NHK Mondai ni kansuru Kisha Kaiken to Apiru (18 Jan 2005). *Videonews.com*. [Online]. Available: <http://www.videonews.com/>

Free Speech – Silenced Voices: The Japanese Media and the NHK Affair

Tessa Morris-Suzuki

Professor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Kyuchan Kim

Assistan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NHK Affair, which deals with Asahi's disclosure about political pressure to NHK documentary program on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has raised fundamental questions on the capacity of Japanese media to maintain their political independence and provided a forum of unfettered political debates. Mainstream Japanese media focused either on attacking the journalist who reported the whistleblower's revelations or on the struggle between two corporate rivals, NHK and Asahi, although an essential problem with the event was the ruling party's excessive political intervention in the public broadcasting. During the NHK affair, the Japanese media functioned as a guard dog, protecting the interests of Japanese representative right-wingers such as Abe Shinzo. Ironically, strong demands for fairness and balance toward liberal media and continuous threats of terror have been pushing the political spectrum of Japanese media further to the right. The NHK Affair demonstrates those concepts designed to protect media freedom can be manipulated to stifle the freedom of speech and lead mainstream media to keep silent.

Key words : NHK, the Asahi,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Japanese press, political pressure, Abe Shinzo